



나뭇가지 하나로도 넉넉하다



대흥사 부도전의 초의 스님 부도

초의 스님의 해남 일지암(一枝庵) ⑥

대흥사(대둔사)의 13대종사 중 마지막 대종사인 초의(草衣·1786~1866) 스님은 어느 날, 쉬어갈 나뭇가지 하나를 찾는 산채처럼 조용한 곳에 암자 하나를 짓는다. 그리고 40년을 그곳에서 쉬었다 간다. 초의 스님의 마지막 한 자리 일지암이다.

대흥사 마당에 들어섰을 땐 이미 날이 저물고 있었다. 일지암은 대흥사 산내 암자다. 초의 스님의 일지암은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후 폐허가 됐고, 지금의 일지암은 옛터를 찾아내 복원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만난 일지암에는 3대 주지(임주인 무인(無因) 스님이 차를 우려 놓고 계셨다. 손수 만든 차였다. 다구 속에 담긴 차맛은 초의 스님이 일군 일지암 차밭에서 온 것이었다. 명차였다. 차맛을 입을 줄 몰라 죄송스러웠다. 일지암에서 차 맛을 몰라보는 것은 문맹이었다. 스님이 빈 차잔에 차를 채웠다.

초의 스님은 종사로서의 면모는 물론이고, 시(詩)·서(書)·화(畵)·차(茶) 등 많은 분야에서 깊었던 분이였다. 그 중 차에 관한 업적이 특히 후세에 많이 전해졌다. 스님은 깊은 다인(茶人)이었다. 일지암을 짓고 난 후 일대에 차나무를 심고, 다서(茶書)의 고전인 <다신전>과 <동다송>을 썼다. 특히 <동다송>은 다인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책으로 전해진다. 당시 학자이자 명필이었던 추사 김정희는 스님의 차에 반해 스님의 평생지기가 된다. 차를 보내 달라 떼를 쓰는 추사의 서신은 유명한 일화다.

스님은 일지암에 머무는 동안 지관겸수(止觀兼修)에 전력을 다해 대종사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았고, 당대의 내로라하는 유가(儒家)의 선비들과는 시·문을 주고받으며 문인으로서의 영역을 넓혔다. 또한 대흥사 대광명전의 단청과 벽화를 손수 그리는 등 많은 불화를 남겼고, 유배지의 도반이 생각날 땐 먼 길도 마다 않으며 따뜻한 인간으로서의 삶도 남겼다.

자녀 불부터 일지암에 살고 있는 무인 스님은 초의 스님부터 치면 4대 주자인 셈이다. 스님은 초의 스님의 흔적 위에 살게 된 것을

축복으로 생각한다면, 세간에서 초의 스님이 다인으로서만 크게 부각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초의 스님은 분명 '보우'(普雨)라는 커다란 이름에서 비롯된 서산, 편양 법맥의 마지막 종사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의 스님의 별호 앞에 '종사' 대신 '다성'(茶聖)이나 '차의 증흥조' 등의 말이 먼저 붙는 것은 스님의 법명을 온전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주지 스님이 다시 차잔에 차를 채웠다. 밤이 깊어갈수록 차잔 속에 떨어지는 차물소리도 점점 크게 들려왔다.

새소리에 잠을 깬다. 새소리가 지나간 문틈을 아침 햇살이 물려와 채웠다. 더 이상 문을 닫고 누워있을 수 없었다. 사립문 밖에서 동백나무 하나가 꽃잎을 툭툭 던지고 있었다.

일지암의 구조는 다른 암자들과 많이 달랐다. 일지암 편액이 걸려있는 작은 당우는 2층 정도의 정사각형으로 뿔뿔이 지붕을 올렸다. 초가집이다. 추녀 밑에는 작은 다정구가 있었다. 암자 뒤편에는 유천이라 이름 붙은 샘에서 맑은 물이 대통을 따라 흐르고 있었고, 들엔 연못이 있어 구름도 담기고 꽃잎도 담겨 있었다.

일지암은 작은 암자였다. 그러나 커다란 암자였다. 일지암은 얹어진 암자였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암자였다. 일지암엔 초의 스님의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일지암엔 초의 스님의 것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차밭에서 차동이 짓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چه 잠깐 보았다고 꼬리를 흔들며 달려온다. 멀리서 주지 스님이 차동이를 부른다. 아침 공양이다.

일지암을 찾았다면 스님의 높았던 이름보다는 따뜻했던 가슴을, 스님이 남긴 업적보다는 스님이 가졌던 불교를 생각하며 찾아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동백나무가 또 꽃잎을 툭툭 던지고 있었다.

글·사진 = 박재완 기자 waniholl@hanmail.net

일지암 가는 길
땅 끝으로 가면 된다. 남해의 불바람을 만나면 대흥사가 나온다. 대흥사 마당을 지나 700m 정도 올라가면 일지암이다.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변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얹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니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공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변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집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됐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에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집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변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2010년 드는 삼재시작 용띠, 쥐띠, 원숭이띠,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쫓는 영험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삼재 2011년 뚝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띠, 돼띠, 닭띠 삼재기간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삼재가 시작된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와 삼재액란

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 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중 무사 무탈하고 승리하게 집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리며 지급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금액 45,000원 문의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입금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 공금가격 별도 상담요)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마쳐!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일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정"을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팁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스님 30%할인)